

박목월시의 기독교의식*

김 인 섭**

< 목 차 >

- I. 서론
- II. 박목월 신앙시 연구의 과제
- III. 기독교의식의 양상
 - 1. 죄의식
 - 2. 중생(거듭남)의 과정
 - 3. 구원의식
- IV. 결론

<Abstract>

Christian spirit in the poem of Park Mokwol

Kim, In-seop

Pak Mokwol, who produced works based on Korean native sentiment, is predominant in the history of poems of Korea as a lyric poet. However, his poems after the middle period of his career are written on the basis of Christian view on the world and that view provides an important basis to his poetic imagination. Therefore, what became to feature his poems are traditional lyricism and imported thoughts.

However, study on Pak Mokwol mainly conducted on the former. People have begun to turn their attentions on the latter since 1980s.

* 본 연구는 2004년도 숭실대학교 교내연구비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 숭실대학교 교수

Various aspects of Christianity in the poet were addressed but yet there was no concrete approach to the essence of Christianity such as the sense of guilt or will for rescue.

In this article, the sense of guilt is mainly featured, which has been neglected for a long time. As Christian, the poet had clear concept of the original sin and he also had the idea that a human being must get through the pain given as the price of one's sin. Not only that, he believed a human being can be rescued by offering one's life to the disposition of Providence.

Such spirit of his poet reached the peak in the latter period of his career. Given his journey in poetry, Pak Mokwol can be considered as a poet who accepted the traditional belief of the Christianity in his poet most intactly.

I. 서론

박목월은 불교문화의 성지나 다름없는 고도(古都) 경주에서 성장하면서 당시로서는 드물게 독실한 기독교신앙의 소유자였던 어머니로부터 기독교신앙을 생활감정으로 몸에 익히고 의식화하였다. 고향을 떠나 대구 계성중학교에 다니기까지 어머니와 함께 한 유년시절은 기독교 신앙을 체득하는 과정 그 자체였다.

그의 시 「수요일의 밤하늘」은 그의 신앙적인 가정환경과 성숙과정을 짐작케 해주는데, ‘사도신경’을 외운다거나, 어머니에게 소박한 신앙적 의문을 묻는 등 자신의 신심(信心)을 어머니와 함께 고향 마을에서 다져나갔음 볼 수 있다. 유년시절, 고향에서, 어머니와 함께 신앙의 싹을 틔우고 성숙시켜 나감으로써, 사상적인 수용 이전에 신앙을 체질화하

였다. 그래서 그의 신앙시는 삶과 시가 일치될 수 있었고, 신성과 세속의 심연에서도 파탄을 일으키지 않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우리의 기독교시에서 한 개인의 신앙적 성숙과 시적 발전과정이 조화롭게 일관된 흐름을 이루는 경우를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사례라 할 수 있다.

그의 시에는, 특히 후기로 올수록 기독교적인 세계관에 입각한 작품들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고, 많은 논자들에게 의해 기독교는 박목월 시정신의 중핵으로 작용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그의 기독교 신앙시에 대한 관심과 논의는, 시인이 타계한 이듬해 그의 신앙시만을 모은 유고시집 『크고 부드러운 손』간행을 계기로 촉발되었다. 이제는 적지 않은 논의가 이루어져 박목월 시세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요구하기에 이르렀고, 그의 시적 특질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그 논의의 대부분은, 신앙시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어머니』, 『크고 부드러운 손』 등 특정 시집의 작품으로 논의대상이 편중되어 있고, 내용도 신앙시의 양상을 소개하는 데 치중하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 박목월의 신앙시에 대한 기존의 연구현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그의 신앙시에 대한 본질적 이해를 위한 과제가 무엇인지 먼저 확인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본 논고의 목적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박목월 신앙시 연구의 과제

박목월의 신앙시들은, 시적 기교나 작위적 형식 없이 회개하고 고백하는 형태를 띠면서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쓰여진 까닭에 시적 긴장을 유발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그의 시세계에 대한 논의에서 신앙시 부분은 별다른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

러나 일부 논자들의 거듭되는 문제제기로 작금에는 그의 시세계 내지 시정신에서 기독교적 요소는 중요한 요인으로 수용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지금까지의 논의 결과를 시기순으로 검토하여 그의 신앙시의 본질에 접근하기 위한 과제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박목월 시의 기독교적 측면에 대한 관심과 논의는, 시인의 타계 1주기를 맞이하여 간행한 그의 유고 신앙시집 『크고 부드러운 손』(1979)에 대해 이성교¹⁾가 이 시집에 나타난 박목월 신앙시의 경향을 소개하면서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듬해 『심상』지 3월호에는 황금찬²⁾과 김열규³⁾의 글이 실렸는데, 김열규는 박목월의 작품 「小曲」한 편을 깊이, 다각도로 분석하면서 그의 시형식이 관념과 정서를 통어(統御)하는 유기성을 띠며, 자신의 정서적 인식에 종교적 위탁을 붙인 점을 들어 그의 시적 상상력이 종교적 지향성을 내포하고 있었음을 환기시켰고, 황금찬은 박목월의 신앙은 어머니로부터 오는 것이고, 어머니는 가족들에게 깊은 신앙을 내려달라고 기도하였는데, 그 어머니의 기도가 시로 변한 것이라고, 목월 신앙시의 뿌리와 특징에 대해 간단하게 언급하였다.

이승훈⁴⁾은 시인의 시세계 전반에 대해 해설하는 가운데 끝부분에서 시인의 종교적인 시편들만 묶은 시집 『크고 부드러운 손』의 시세계에 대해 두 가지 측면을 언급하였다. 하나는 그의 시세계에 신의 문제가 초기부터 후기까지 시인의 의식 가운데 은밀히 스며 있었다는 점이며,

1) 그의 신앙시의 경향을 회개, 간구, 찬양의 시로 나누고, “시의 중요한 기법인 언어의 절제에 얽매이지 않고 영혼 속에 우러나는 마음을 중시했다.”고 하였다.(이성교, 「크고 부드러운 손」, 『심상』 1979.3., p.57·58)

2) 황금찬, 「박목월의 신앙과 시」, 『심상』, 1980.3.

3) 김열규, 「정서적 인식과 종교적 위탁 -그의 「小曲」에 붙여-」, 『심상』, 1980.3.

4) 이승훈, 「事物로 통하는 하나의窓 -목월시의 구조-」, 『박목월 : 한국현대시문학대계18』해설, 지식산업사, 1981., pp. 232~234.

다른 하나는 후기에 도달한, 세계의 존재론적 근거로서의 자유라는 명제가 신의 개념을 통하여 새롭게 지양된다는 사실이다. 후자의 문제에 초점을 두면서 ‘신앙인’으로서의 화자, ‘하느님’으로서의 대상, ‘경건함’으로서의 정서가 신앙시의 구조적 유형을 이루는바, 화자와 대상의 관계는 신앙적인 경건함이라는 정서를 매개로 함으로써 내재적이거나 지상적인 화해가 아니라 초월적이거나 천상적인 화해의 양식으로 드러난다고 하였다. 그리고 초기부터 은밀하게 스며 있는 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글이 씌어져야 할 것”이라고 하여 과제로 남겨 두었다.

오세영⁵⁾은 박목월의 일관된 시적 지향으로서, 자연에 대한 친화력, 섬세한 포말리스트 외에도 그의 시의 철학적 배경에는 기독교가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목월의 기독교적 세계관에 대하여 일반 평가(評家)들이 무관심했던 것은 아마도 목월이 전통적 향토 시인이라는 편견에서 오는 것 같다.”⁶⁾면서, 세계관 혹은 인생관이 아닌 단순한 정서적 효과로 차용된 그의 문학적 향토성은 기독교 정신에 위배되지 않는 것이며, 오히려 기독교의 복음이 씨앗으로 뿌려질 수 있는 소박한 토양으로서 의미를 갖는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목월에 있어서 기독교 지향의 발전과정은 1) 삶의 근원적 조건(고독, 죽음, 존재의 역설성)의 인식, 2) 자기구원, 3) 세계에 대한 달관 등으로 전개된다고 하였다. 아울러 ‘갈증’, ‘목마름’, ‘메마름’ 등 그의 목마름 시적 역정은 그의 종교적 지향의 다른 표현이었던 것이라고 하여, 박목월시의 깊은 뿌리와 본령에는 기독교적 세계관이 지속적으로 작용하고 있었음을 환기시켰다.

김재홍⁷⁾은 시인의 신앙시집 『크고 부드러운 손』을 ‘신성사(神聖史)와 영원예의 길’이라는 제하에 다루면서, 신앙은 이순(耳順)을 넘긴 목월

5) 오세영, 「박목월론」, 『현대시와 실천비평』, 이우출판사, 1983.

6) 오세영, 상계서, p.98.

7) 김재홍, 「목월 박영종 -인간에의 길, 예술에의 길-」, 『한국현대시인연구』, 일지사, 1986. pp.384~389.

에게 있어 이미 생활과 예술의 전부가 되어 있는 것이며, 그의 시는 신 앞에 선 인간의 행복을 노래함으로써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된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그의 신앙시에서 ‘어머니’의 존재는 육신의 고향이며 영원의 고향이기도 하지만, 구원의 표상이기도 하며, 생명의 근원이면서도 더 큰 어머니인 하나님의 나라로 이르게 하는 영생(永生)의 가교이기도 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신익호⁸⁾는 한국현대기독교시의 흐름을 개관하고, 김현승, 박두진, 구상, 박목월 등 주요 기독교 시인을 다루는 저술에서, 박목월시의 성서적 모티프와 기독교 시의식의 표상의 양상으로서 ‘어머니’, ‘문(門)’, ‘식물성’ 등에 대해 본격적으로 고찰하였다. 그의 시에서 성서의 설화적 모티프를 소재로 한 작품은 몇 편에 지나지 않지만, 성서의 원문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음 지적하였다. ‘어머니’, ‘문’, ‘식물성’ 등의 심상으로 시인의 표상 양상을 정리하여 그의 시에 나타난 신앙이 기독교 교의에 충실하게 전개되었음을 밝혔다.

황인교⁹⁾는 박목월의 신앙시들은 질문을 던지며 망설이는 회의와 부정의 거친 호흡보다는 구속과 질서 안에서의 안도를 노래하는 시였다고 하면서, 그의 시는 결국 만물의 소생을 꿈꾸고 태초에 하나님이 만든 조화로운 세계를 지향하며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성숙한 신앙을 담고 있다고 하였다. 간단한 글을 통하여 박목월 신앙시의 전반적 성격에 대하여 소박하게 서술하였다.

김인섭¹⁰⁾은 박목월의 신앙시를 정지용의 경우와 대비적으로 고찰하면서, 서로 상반된 특성, 즉 기독교 수용에 있어서 외래적·사상적 수용과 토속적·체험적 수용, 신학적·논리적 신앙과 체험적·실천적 신

8) 신익호, 「현대기독교시의 분석 -박목월론-」, 『기독교와 한국현대시』, 한남대학교 출판부, 1988. pp.211~232.

9) 황인교, 「박목월의 신앙시」, 『기독교사상』 397, 대한기독교서회, 1992.1.

10) 김인섭, 「정지용·박목월 신앙시의 대비적 고찰」, 『국어국문학』 124, 국어국문학회, 1999. pp. 291~317.

양의 대조적 측면을 고찰하고 나서, 기독교정신의 토착화라는 측면에서 두 시인의 의의와 한계를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즉, 정지용에게서는 신앙시의 방법적 한계를 보는 동시에 낮은 정신을 수용하는 데 따른 고뇌의 깊이를 보게 되고, 박목월에게서는 체질화된 신앙의 힘과 그것의 한국적 양식화의 가능성을 보면서도 신앙공동체로서 더불어 체험하는 울림이 강하지 못한 아쉬움을 남긴다는 것이다. 오세영이 박목월의 향토성에 대해 “기독교 정신에 거부 반응을 보이는 소인으로 작용하기보다는 오히려 기독교의 복음의 씨앗으로 뿌려질 수 있는 소박한 토양으로써 의미를 갖는다.”¹¹⁾고 했을 때, 그 구체적인 양상을 규명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김은정¹²⁾은 박목월 문학이 지니는 특징 중 기독교의 세계는 가장 주목되어야 할 국면이라면서, 그의 기독교적 세계는 존재에 대한 허무의식에서 잉태되어, 어머니를 통해 신과의 만남을 이루고, 시, 그 존재의 충만함으로 나아간다고 보았는데, 그 전개과정을 개략적으로 소개하는 것으로 그쳤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박목월시의 ‘어머니’ 이미지를 중심으로 그의 신앙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금동철¹³⁾, 최승호¹⁴⁾, 한광구¹⁵⁾, 허영자¹⁶⁾ 등의 논의를 들 수 있는데, 이는 시인이 ‘어머니’를

11) 오세영, 전거서, p.103.

12) 김은정, 「시 속에 구현된 신과의 만남 -박목월론-, 『문예시학』, 충남시문학회, 2000.

13) 금동철, 「박목월시의 ‘어머니’ 이미지와 근원의식, 『한국시학연구』, 한국시학회, 2000.

14) 최승호, 「박목월 서정시의 이데올로기와 ‘어머니’, 『우리말글』21, 우리말글학회, 2001.

최승호, 「1960년대 박목월 서정시에 나타난 구원의 시학, 『어문학』, 한국어문학회, 2002.

15) 한광구, 「박목월 시에 나타난 ‘어머니’의 이미지 연구 -‘어머니’에 나타난 시간성과 공간성을 중심으로, 『한국시학연구』, 한국시학회, 2002.

전범으로 한 그의 신앙적 삶의 여러 모습을 시적 심상으로 풍부하게 보여주었기 때문에 논의가 집중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금동철은, 그의 시에 나타나는 어머니 이미지는 시인으로 하여금 서정적 동일시를 가능하게 하는 근원이 된다고 하면서, 시인의 어머니는 보다 근원적인 절대자에게 닿아 있으며, 이것이 그의 서정적 근원으로 작용한다고 보았다. 두 번에 걸쳐 논의를 거듭한 최승호는, ‘박목월 서정시에 나타난 구원의 시학’이라는 주제 아래, ‘가족’(1964, 『晴曇』, ‘고향’(1968, 『정상도 가랑잎』), ‘모성’(1968, 『어머니』)을 통한 시적 구원의 양상을 살폈다. 그에게 ‘어머니’는 구원의 지표로 기능하면서, 시적 자아와 서정적으로 일체를 이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적 자아로 하여금 자연과도 합일하게 해주는 존재이며, ‘영원한 모성’으로서 우주 만물 안에 스며 있는 존재이기도 하고 자아의 존재근거가 된다고 보았다. 시에 나타난 ‘어머니’의 역할과 그 의미를 다각도로 고찰하여 그의 신앙시 세계의 질서와 구조를 가늠할 수 있게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시적 구원이라는 시인의 일련의 시적 지향과정에서 기독교의 세계관이 근원적으로 작용하고 있음도 아울러 규명하였다.

한광구는 ‘어머니’의 이미지를 ‘육친(肉親)’으로서, ‘정서적 지향점’으로서, ‘신화적 자연’으로서, ‘신적 모성’을 지닌 존재로서 세분하여 ‘어머니’ 표상의 다양한 모습을 살폈다. 어머니가 신앙적 전범이며 신을 향한 통로 구실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의 시에서는 또다른 시적 기능을 한다는 점을 환기시켜줌으로써, 신앙적 표상으로서 어머니의 성격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었다. 허영자는 시에 나타난 ‘어머니’의 모습을 세분하여 그 다양한 면모를 정리했는데, 박목월 시에 나타난 어머니상을 일반적인 모성의 상징인 어머니와, 구체적으로 시인 자신의 어머니를 노래한 것, 두 가지로 나누어, ‘신앙의 어머니’는 후자에 속하며,

16) 허영자, 「박목월의 시에 나타난 가족의 의미 -‘어머니’ 시를 중심으로-」, 『새국어교육』65, 한국국어교육학회, 2003.

“만상에 깃들여 무소부재하는 신과도 같은 존재”라고 하였다.

이렇게 최근에 집중되고 있는 ‘어머니’에 대한 논의의 대부분은 시의식의 뿌리와 궁극적 지향성을 규명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한 채, 신앙적 뿌리가 내려 성장하고 실천하는 신앙인으로서의 시인의 모습을 비슷비슷한 관점에서 조명하는 데 머무르고 만 아쉬움을 남긴다.

이상의 논의에서 확인된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1) 무엇보다도 박목월은 성서에 기초하여 성숙한 신앙을 작품을 보여준 대표적인 기독교시인이며, 2) 그의 신앙은 어머니에게로부터 영향 받은 것으로, 어머니는 그의 신앙적 모태이자 전범(典範)이며, 그의 시적 상상력에서는 절대자의 세계로 나아가는 회로이기도 하며, 신적인 질서와 세계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과 같은 존재로 표상되며, 3) 신앙시는 시인의 시적 여정에서 대단원을 장식하고 있다는 것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논의 결과, 박목월의 시세계에서 기독교적 요소는 초기부터 은연중 작용해온 시적 원리이며, 그의 시에서 소홀히 할 수 없는 상상력의 뿌리였다는 사실이 부각되었다. 그리고 신앙시의 구조적 유형이 규명되기도 하고, 그의 향토적 서정성이 외래적인 기독교의 세계관과 배치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 있게 해명되었으며, 서정시의 동일성 지향에 있어서 신앙시에 나타나는 ‘어머니’가 구원의 표상으로서 나타남으로써 그의 시적 지향이 궁극적으로 기독교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등, 기독교적 신앙과 세계관이 박목월 시세계에서 갖는 비중과 의미가 새롭게 고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한계를 노정하고 있는데, 우선 기독교적 세계관이 시세계에 일관되게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정작 논의의 대상은 신앙시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거나 신앙시만 모은 특정 시집(『어머니』, 『크고 부드러운 손』)의 작품에 한정되는 경향을 보였다는 점이다. 그의 기독교적 의식을 드러낸 작품들은 시집 『蘭·其他』¹⁷⁾, 『晴曇』¹⁸⁾, 『沙磧質』¹⁹⁾ 등에도 나타나며, 여기에는 오히려 시인

의 기독교의식의 면모를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작품들이 상당수 수록되어 있다. 또한 1987년에 간행된 두 번째 유고시집인 『소금이 빛나는 아침에』(문학사상사, 1987)의 작품은 거론된 적이 없는데, 여기에는 생애 말기에 죽음을 앞둔 신앙인으로서 면모를 확인할 수 있는, 그의 신앙시가 도달한 세계를 살펴볼 수 있는 작품들이 수록되어 있다.

이에 따라 논의의 내용도, 신앙시의 양상을 소개하는 데 머문 것이 상당수이며, 본격적 논의를 한 몇 편의 논문들도 신앙시의 특질이나 원리, 구조적 측면 등을 설명했지만, 시인의 기독교의식을 체계적으로 해명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 따라서 박목월의 신앙시 연구는 우선 논의의 대상 작품을 폭넓게 다루어야 하며, 아울러 신앙시에서 나타난 시의식, 즉 기독교 의식의 해명과 함께, 이것이 그의 시세계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도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기독교 의식의 핵심내용이라 할 수 있는, 죄의 인식, 속죄(거듭남), 구원의 성취에 대한 시적 표상의 양상을 고찰할 것이다. ‘죄’의 문제는 인간존재의 근본적 이해와 더불어 삶의 동기와 방향을 규정하게 될 뿐만 아니라, 시인에게 있어서는 시정신의 원형질을 이루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한 개인에게 있어서 중생(重生, 거듭남)의 체험은 시적 자아의 존재전환적인 변화로서 기독교시인으로 하여금 독자적인 시세계를 구축하게 하는 중핵이 된다. 마지막으로 구원의 성취 과정은 시적 초월의 단계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시의식의 궁극적인 지향점이 무엇이었던가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한국시의 형이상학적 전통에 새로운 국면을 보여준다는 의미를 가지기도 한다.

III. 기독교의식의 양상

17) 「下官」, 「雅歌」, 「庭園」, 「孝子洞」 등.

18) 「밥상 앞에서」, 「전화」, 「果肉」, 「秘意」, 「風景」, 「轉身」, 「이 時間을」, 「同行」, 「一泊」 등.

19) 「빈컵」, 「兩極」, 「중심부에서」, 「눈썹A」 등.

1. 죄의식

기독교적 죄의식은 원죄의식(原罪意識)과 본죄의식(本罪意識)으로 구분할 수 있다. 원죄는 모든 사람이 아담과의 관계로 출생하면서부터 가진 죄를 말하며, 이는 본죄의 내적 근원이 된다. 그리고 본죄는 외부적 행위로 되는 죄이며, 원죄에서 유래하는 의식적 사고와 의지를 말한다.²⁰⁾ 원죄는 아담의 모든 후손이 보여주는 본성의 타락을 의미하며, 인간이 첫 조상의 원의(原義, original righteousness)에서 떨어져, 하나님을 거역함으로써 영적 생명성을 잃고 악에 이끌리는 것²¹⁾으로, ‘하나님으로부터의 결별’, ‘근원으로부터의 추락’²²⁾을 의미한다. 박목월의 시에서는 ‘본죄의식’보다는 인간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라 할 수 있는, 원죄의식이 뚜렷이 나타난다. 원죄는 근원적으로 인간의 ‘자유의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타오르는 생명의 소란스러움도
 神性의 신비의 베일도
 물러갔다.
 다만 불꽃의 중심을 지켜보는
 나의 얼굴에
 빛과 어둠의 흐늘흐늘한
 불꽃무늬가 얼룩졌다.
 때로는 神의 그것과 같은
 때로는 惡魔의 그것과 같은
 나의 얼굴의

20) L. Berkhof, 『기독교신학개론』,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출판부, 1958. p.121.

21) L. Richards, 『신학용어해설사전』(김진우역), 생명의 말씀사, 1993., p.276.

22) 윤성범, 「한국인의 죄의식」, 『기독교사상』226, 대한기독교서회, 1997.4., p.79.

兩極의 진실은
우리의 것이다.

- 「兩極」부분

시집 『사력질』에 수록되어 있는 이 시는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의지의 문제를 주제로 하고 있다. 기독교에서 인간의 자유의지는 기수(騎手)의 지시에 복종하는 말에, 하나님과 악마는 기수에 비유되기도 한다.²³⁾ 하나님이 타면 말의 방종과 광포성을 제지하며 괴벽한 성격을 길들이며 바른 길로 인도하지만, 악마가 기수의 자리를 차지하면 길 없는 길을 달리도록 하며 말을 엇가게도 하고 사납게 한다. 즉, 인간의 자유의지는 선과 악의 어느 쪽으로든 그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이다.

위의 시에서도, 화자의 얼굴에 얼룩진 ‘빛과 어둠의 흐늘흐늘한 불꽃 무늬’로써 인간의 자유의지를 비유하고 있는데, ‘신의 그것’과 ‘악마의 그것’을 동시에 지닌, ‘양극의 진실’을 인간존재의 전제조건으로 받아들인다. 아우구스티누스²⁴⁾에 의하면 인류의 시조 아담은 타락의 가능성을 가진 자유와 운명, 선악의 선택의 가능성을 그 속에 가지고 있는 중성적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 이 중성적 존재를 지키는 것, 이 자유를 지키는 것 자체가 은총을 의미하였다. 아담의 범죄는 인간의 자유에 의해서 선택된 범죄였고, 그 결과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가능한 존재로부터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필연적인 존재로, 즉 타락한 존재가 되었고, 그의 자유는 죄의 노예가 되었던 것이다. 이 아담의 죄는 성육과 생물학적 번식에 의하여 후대에 유전된다. 즉,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죄와 죽음이 들어들어 온 것이다.

박목월도 이 ‘양극의 진실’을 수용하면서, 그 중심²⁵⁾, 원래 지음 받은

23) J. Calvin, 『基督教綱要撰』, H. H. Keer(ed), 이종성역, 대한기독교서회, 1960. p.61・62.

24) 박봉근, 「현대신학에 있어서 원죄의 케류그마의 상징화와 해석학적 문제」, 『기독교사상』71, 대한기독교서회, 1963.12., p.8 참조.

그대로의 ‘중성적 존재’를 견지하고자 한다. 하지만, 켈빈에 의하면 자유의지에 따른 인간의 선택은 역설적이게도 자유롭지 않으며, 자유라고 하는 것조차 하나님의 뜻에 종속된다고 한다. 시인도 “나이 60에도 / 중심이 잡히는지 나의 신앙 / 주여 굽어 살피소서.”(‘거리에서’ 전반부)라고 하는바, 신앙의 중심잡기는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신에 의해 주재되는 일임을 고백하고 기원을 한다.

여보게.

고뇌(苦惱)는 인류(人類)의 벼슬 길 없는

영원한 숙명(宿命). 아담의 이마에 절이는 소금.

그러나 인고(忍苦)로 신(神)을 볼 수 있는

그것은 또한 신(神)의 은총(恩寵).

- 「同行」부분

그의 세 번째 시집인 『晴曇』(1964)에 실려 있는 이 시는, 화자가 제자와 함께 ‘을지로6가’를 동행하면서 주고받는 대화로 이루어져 있다. 시대적 질고와 부조리 속에서 “선생님, 이래도 살아야 할까요.”라고 묻는 제자의 말에 “아무리 괴롭더라도, 오늘의 참된 삶을 위하여 / 참고 견디는” 일이 필요하다고 답하는 내용 가운데 한 부분이다. 우리의 고통스러운 삶을 ‘인류의 벼슬 길 없는 고뇌’, ‘영원한 숙명’, 즉 원죄에서 비롯되는 고통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인고(忍苦)’로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을, 장차 신(神)을 볼 수 있는, ‘신의 은총’으로까지 여기고 있다. 그래서 시의 뒷부분에서는 “아무리忍苦의 쓴 汁이 / 오

25) 박목월의 시에서 수평적 ‘중심잡기’의 표상은 수직적 자세를 가다듬는 것으로 제시된다. “수평으로 양팔을 벌리고 / 혼신의 집중으로 밸런스를 잡는다. / 수평대 위에서. / 그것으로 나는 수직적 / 자세를 가다듬는다.”(‘밸런스’ 전반부)라고 하면서, “그것은 영원으로 출렁거리는 파도를 타려는 또 하나의 수평자세이다.”라고 하여 그의 중심잡기는 원죄에의 인식에서 시작하여 ‘은혜’, ‘구원’, ‘희망’에 이르기 위한 신앙적 자세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늘의 蠶 위에 넘칠지라도 / 참고 사는 것은 / 그것에만 끝나는 것이 아닐세. / 자네는 보이지 않는가 / 未來의 까마득한 時間 속에 / 열리는 한 개의 最善의 열매.”라고 덧붙여 말해준다.

이처럼, 시인은 원죄를 인간된 고통스러운 조건으로 수용하면서, 오늘을, 현실을 살아가는 신앙인의 자세로 가다듬고 있다. 원죄를 표상하는 또다른 표현은 「新春吟」이라는 시에서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인식과 자세는 거듭 나타난다. “우리 생활이 아무리 분주하더라도 / 또한 이마에 땀방울이 맺혀야 / 비로소 衣食에 窮하지 않는 것이 / 인간에게 주어진 刑罰일지라도 / 躁急히 굴지 말자.”라고 한다. 여기서 원죄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비로소 생존이 가능한’ 형벌로 제시되는데, 인간존재의 조건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급하게 굴지 말자고 하는 것은, 다음에 이어지는 표현에 의하면, ‘가난 속에 스민 은혜’, ‘고뇌 안에 싹트는 구원’, ‘절망 속에 넘실대는 희망’을 싸안고 ‘충명한 눈’을 뜨기 위한 것이었다. ‘고뇌 안에 싹트는 구원’은 다름 아닌忍苦 속에 스며 있는 ‘신의 은총’이다.

원죄로 인해 수치스러움을 인식하고 시대적 사명을 각성하는 계기로 받아들였던 운동주나, 고독한 인간존재의 근원적인 연원으로 인식하고 실존의 내면적 갈등을 겪었던 김현승과도 달리, 박목월은 원죄의 근원인 자유의지의 문제까지 인식하고 있으며, 원죄를 인간존재의 비극적 뿌리로 여기면서도²⁶⁾, 그 고통은 또한 신의 은총에 의해, 구원의 조건

26) 이런 인식은 시집 『沙礫質』에 수록되어 있는 「틈서리」라는 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편의상 작품만 제시한다.

“樂園洞 골목의 / 벽돌담이 젖고 있다. / 겨울 빗발에 / 既決囚의 벽돌빛갈이 젖는다./ 사랑이여. / 우리들의 言語는 / 처음부터 事物 그것에 붙인 / 이름이 아니다. / 虛構와 抽象의 틈서리에서는 / 태초의 혼돈이 서려 있고 / 樂園洞은 樂園洞이 아닌 / 종로 뒷골목에 불과했다. ...<중략>... 사랑이여. / 길로 향하여 열려 있는 / 通用門의 그 틈서리로 / 보이는 것은 / 안채의 壁 / 이 젖고 있는 / 既決囚의 벽돌빛갈이다.”

이 된다는 희망적인 인식을 보여준다.

2. 중생(거듭남)의 과정

‘중생’은 인간을 원래 의도되었던 존재로, 그리고 또 타락하기 전, 죄가 인류에게 들어오기 전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이다.²⁷⁾ 이는 거듭나는 체험이며, ‘회개’와 ‘신앙’으로써 이루어진다. 회개란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이며, 신앙이란 그리스도에게로 향하여 나가는 것이다. 절대자 하나님을 등지고 그를 떠난 한 인간이 멈춰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를 향해 움직이는 것이다. 이런 전환의 과정은 죄 씻음을 받음으로써 가능하다.

주여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정한 마음을
당신이 창조해 주심으로
나는 새롭게 눈을 뜨고
내 안에 돌아나는
기름진 잎새.

- 「우슬초」부분

위의 시에서 ‘죄의 정화’를 통해 거듭나는 화자의 모습은 기독교 중생의 전범(典範)이라 할 수 있다. 시에서 화자가 기원하고 경험하는 것처럼, 절대자의 은총에 의해 ‘정한 마음’을 얻고 ‘새롭게 눈을 뜨’는 과정은, 인간을 신이 원래 의도되었던 존재로, 또 타락하기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기독교의 ‘중생’ 개념에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27) M. J. Erickson, 『구원론』(김광렬 역), 기독교문서선교회, 1992. p.178.

성서에 의하면, 제물로 바치는 새의 피를 ‘우슬초’로 찍어서 결례(潔禮)를 드리는 자에게 일곱 번 뿌렸다고 한다. ‘결례’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속죄하는 죄인에게 우슬초에 피를 찍어서 뿌렸고, 또 하나는 백성이 죄에 더럽혀지지 않도록 물로 씻은 것이 그것이다.²⁸⁾ 죄를 씻는 것은 영적으로 거듭나서 의롭게 사는 ‘중생’의 과정 그 자체이다. 이렇게 거듭난 상태에서 돌아나는 ‘기름진 잎새’는 “믿음의 주춧돌”에서 돌아난 것이다. 이 ‘잎새’는 그의 다른 시 「이만한 믿음」에서도 등장하는데, “갈릴리 바닷가에 나부끼는 / 무화과나무 잎새 같은 / 신선한 삶”이라고 하였다. 이는 같은 시에서 보면, ‘뜨겁게 믿는 믿음’에 의해 귀가 멀고 석고처럼 사지(四肢)에 새로운 생명의 피가 돌며, 맑은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며, 새로운 하늘의 광명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상태에서 영위하는 삶이다. 즉 지난날의 모든 것을 태우고 “새로운 생명의 피가 도는”, ‘거듭나는 삶’을 지향하는 것이다.

거듭남으로써 눈을 뜬 시인은 비로소 사물을 사물 자체로 볼 수 있는 순수함의 경지²⁹⁾에 들어서게 되었고, 사물 그 자체가 충만함을 지니고 있다는 현실 긍정과 수용의 자세를 지니게 된다.

회고도 눈부신
천 한 자락을 하늘나라에서
내게로 드리워주셨다.
...<중략>...

회고 눈부시는
천자락이
북소리처럼

28) 신익호, 전계서, p.229 참조.

29) 나이 60에 겨우 / 꽃을 꽃으로 볼 수 있는 / 눈이 열렸다.

신이 지으신 오묘한 / 그것을 그것으로 / 볼 수 있는

흐리지 않는 눈 / 어설픈 나의 주관적인 감정으로 / 彩色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꽃 / 불꽃을 불꽃으로 볼 수 있는 / 눈이 열렸다. 「開眼」첫연.

가슴에 울리는 음성으로
 변했다.
 뽕과리처럼
 자지러지게 울리는
 음성으로 변했다.
 하늘이 내게 베푸시는 은총
 주의 사람임을 증거하는 표적을 보자.
 나는 그 자리에서 타올라
 재가 되었다.

- 「회고 눈부신 천 한 자락이」부분

이 시에서 화자는 베드로가 되어 직접 영적 체험을 하게 되는 거듭남의 상태로서 ‘주의 사람’이 되는 과정을 보여준다.³⁰⁾ ‘천자락’이 환상 속에서 음성으로 들리는 영적 체험을 느낄 때 그는 한 줌의 재가 되며, 이 ‘재’는 이전의 육적인 모든 삶을 태워 정화시켜 불사조와 같이 영원 불멸의 생명체로 화한다. 시의 끝부분에서는 “잠을 깨자 / 나는 주의 사람 / 새로 빛은 / 포도주 같은 피가 돌고 있었다. / 할렐루야 나는 꿈속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거듭나는 체험을 고백하였다.

이와 함께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시의 부제가 ‘사도행전 十장 十절’로 되어 있는데, 실제 시에서 인용한 내용은 「사도행전」10:9~23까지의 부분으로, 베드로가 구약의 규율에 따라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는 낡은 관습을 주의 음성으로 깨우치고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전한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이 시는 ‘이방인’의 한 사람으로서도 ‘주의 사람’이 되었다는 환희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처럼, 박목월 시에서의 중생과정은, 성서적 전거에 충실하게 따라서 피로써 씻는 ‘결례’와 불로 태우는 ‘번제’를 통해 죄를 정화하여, 영적인 눈을 뜨는, 개인적인 거듭남의 체험이자, 세계의 사물을 사물의 본 모습, 즉 신의 섭리에 따라 지어진 모습 그대로 볼 수 있는 개안(開

30) 신익호, 전게서, p.213.

眼)과정이었으며, 베드로 등 사도들에 의해 세계적 보편종교로 거듭 태어난 기독교에 힘입어 얻은 중생이라는 의미도 함께 지닌다.

3. 구원의식

기독교의 구원관은 현세적 삶보다는 내세적인 삶에 중점을 둔다. 그렇다고 현실을 부인하거나 초월하는 것도 아니다. 부활도 육신의 죽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처럼 내세도 현실이 있어 가능하기 때문이다. 바람직한 구원과 그 완성은 이러한 양면성을 공유한 것이어야 한다. 기독교 신앙시는 현세적 삶과 내세적 삶이 일거에 분리되지 않는, 지상과 천상이 비약되지 않는 상승력을 문학적 상상력으로 보여줄 때 진정한 구원의 의미를 획득할 것이다. 박목월의 시에서 바람직한 구원의식의 면모를 그의 독특한 상상력과 함께 접할 수 있다.

크고 부드러운 손이
내게로 뻗쳐온다.
다섯 손가락을
활짝 펴고
그득한 바다가
내게로 밀려온다.
인간의 종말이
이처럼 충만한 것임을
나는 미처 몰랐다.
허무의 저편에서
살아나는 팔.
치렁치렁한
星座가 빛난다.
목언저리쯤
가슴 언저리쯤
손가락 마디마디마다

그것은 寶石
 그것은
 눈짓의 信號
 그것은 復活의 조짐
 하얗게 삭은
 뼈들이 살아나서
 바람과 빛 속에서
 풀잎처럼 수련거린다.
 다섯 손가락마다
 하얗게 떼를 지어서
 맴도는 새
 날개와 울음.
 치렁치렁한
 星座의
 둘레 안에서.

- 「크고 부드러운 손」전문

이 시는 그의 첫 번째 유고시집의 표제 이름과 같은 제목의 작품으로, 생명감으로 가득찬 바다의 공간에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도 같은 계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말년의 그의 신앙이 부활을 실감하는 경지에까지 도달했음을 엿볼 수 있다. ‘허무의 저편에서 살아나는 팔’이란 그가 갈등 속에서 때때로 회의에 빠지기도 했던³¹⁾ 절대자의 존재를 신앙체험을 통해 확고하게 인식했음을 암시한다. 마지막 유고 시집에 실려 있는 「나의 종말」이라는 시에서 “죽음은 / 어두운 것이 아니다. /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 神의 / 입맞춤”라고 한 데서 보는 것처럼, 시인은 육적인 죽음과 영혼의 부활을 ‘신’과 만나는 황홀한 순간으로 느끼고 있다.³²⁾ 시인의 말 대로 ‘충만한 종말’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31) “이제 두 번 생각하지 않으리라. / 효자동을 밤비를 그 祈禱를”(‘효자동’에서)라든가, “敎會, 갯빛 眺望을 / 나의 信仰은 어둡다.”(‘풍경’에서)라는 표현 등에서 그 징후를 엿볼 수 있다.

시인은 이제 종말에 임하여 어떤 새로운 세계의 열림과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은밀한 변화를 감지하면서 경건하게 기다리는 자세를 보여준다.

아름다운 일을 생각하자.
 술향기로 익어오는 햇빛과
 이마가 환한 正午를
 깨끗하게 손을 씻고
 오늘 하루만이라도
 아름다운 일만 생각하자.
 인생이 항상 환할 수 없지만
 가볍게 열리는 門과
 촉촉하게 젖는 땅과
 물오르는 가지를 생각하자.
 오늘의 근심은 오늘로써 족한
 4월의 어느 하루를.
 꽃그늘 그늘 아래로 거니르며
 별이 잘 켜이는
 이승의 하루가 아니냐.
 근심을 말리며
 아름다운 일만 생각하자.

- 「某日」

시의 화자는 정갈한 마음으로 이승의 근심을 벗고 저승으로 향하는 ‘아름다운 일’만을 생각하고자 한다. 그가 생각하고 있는 ‘아름다운 일’은 ‘가볍게 열리는 門’, ‘촉촉하게 젖는 땅’, ‘물오른 가지’ 들로서, 밝은

32) 역시 마지막 유고시집에 수록되어 있는 「부산에 다녀와서」라는 시를 보면, “굽어본 바다 위로 불어오는 / 그 크고 싱싱한 날개. / 바람의 입맞춤, / 설레이는 바람의 接神”이라고 한 것을 보면, ‘접신’의 이미지는 박목월 시에서 ‘구원의식’의 개인적 상징 구실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예감을 갖게 하는 것들이다. 박목월의 시에서 ‘門’은 “빛과 / 어둠 사이에 / 가로놓여 있는 / 문을 깨닫게 하시고 / 열고 들어가게 하여 / 주옵소서.”(‘門’)라고 기도하던 시적 대상이다. ‘빛’과 ‘어둠’ 사이에 놓여 있는 단절을 소통시켜 줄 수 있는 문이다. “소금이 빛나는 새날 아침에 / 묵중한 금고의 다이얼이 돌아가는 / 차가운 금속성의 / 경쾌한 소리를 생각한다.”(‘소금이 빛나는 새날 아침에’)라고 한 것처럼, 이제는 ‘문’이 가볍게 열리는 소리를 듣고 있다. ‘물오르는 가지’는 “밭밑에 봉 뜨는 에스컬레이터를 생각한다.”(‘소금이 빛나는 새날 아침에’)고 하는 것처럼, 비상하는 ‘상승의 기운’을 느끼게 한다. 시인은 이승의 어둠 속에서 밝게 열려오는 저쪽 세계를 볼 뿐만 아니라, 스스로에게서 느껴지는 상승의 기운을 얻으면서 ‘촉촉히 젖는’ 신의 은총을 감지하고 있다.

담담한
하루를 보낸다.
여한없는 공백을.
조용히 개이는
나의
心靈의 새하늘.
沈默으로
平坐한,
나의 세계를,
모래로 흘러내리는
生命의
律感

- 「三月 某日」전반부

이 시의 화자는 고요하며 맑고 담담한 시간과, ‘여한없는 공백’의 공간에 자리하고 있다. 지상의 모든 시간과 공간을 비움으로써 ‘心靈의 새하늘’을 열고 있다. 침묵으로 언어를 비우고, 平坐로써 일체의 행동마저 더 이상 필요치 않은 세계에서 생명의 은밀한 움직임을 느낀다. 이

승의 세계를 탈각하고 저편의 세계로 건너가기를 기다리는 엄숙한 시공의 세계를 보여준다. 이승의 갈등을 벗어나 새롭게 충만한 세계를 기다리는 순간의 ‘율감(律感)’은 그만큼 가벼운 움직임이자 상승하는 리듬이다. 이는 영원에 닿아 있는 살아 있는 호흡이며, 구원으로 나아가는 시인의 독특한 감각이라 할 수 있다.

박목월의 구원의식은, 이처럼 다분히 계시적이며, 신비적인 체험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는 어머니로부터 전수받은 신앙의 씨앗을 자신의 기독교의식으로 성숙시켜 이승과 저승, 지상과 천상의 경계에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종교적 상상력으로 넘나드는 경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IV. 결 론

본고는 박목월의 신앙시에 대한 기존의 논의에서 소홀히 했던 부분, 즉 그의 시세계 전반에 걸쳐 간헐적이지만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신앙 시편들을 논의의 대상으로 끌어들이고, 오히려 이들 시편에서 중요한 단서를 찾을 수 있는 그의 기독교 의식을 해명하는 일이 그의 신앙시에 대한 본질적 접근이라는 판단 아래 고찰한 것이다. 그 결과 기독교 의식의 중추를 이루는 세목들인, 죄의식, 중생과정(거듭남의 체험), 구원의식 등을 두루 살펴볼 수 있었다.

시인의 죄의식은, 원죄의식에 집중되어 있는바, 여타 기독교 시인들에 비해 죄에 대한 그의 인식은 ‘자유의지’를 사유하는 등 훨씬 근원적인 것이었으며, ‘원죄’에 의한 형벌은 인간에게 비극적인 사건이지만, 오히려 그 속에 구원의 씨앗이 잠재되어 있다는 희망적인 전망을 도출하고 있다. 원죄의식을 바탕으로 현실의 악과 고통을 견디며 미래를 소망하는 삶의 자세를 확립하기도 하였다.

그의 시에서 죄를 극복하고 구원으로 나아가는 ‘거듭나는 과정’은 철

저희 성서적 진리에 근거하고 있는바, 피로 씻는 ‘결례’와 불로 태우는 ‘번제’를 통해 죄를 정화하고 ‘주의 사람’으로서 새 생명을 얻고자 하는 기원과 그 환희로 나타난다. 시인에게 있어서 거듭남은 사물을 사물 그 자체로 보고, 그 속에서 신이 창조한 오묘한 질서까지도 지각하는 ‘開眼’의 과정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 세계는 사물 자체가 신의 섭리에 의해 스스로 충만함을 지니고 있다는 현실긍정적인 삶의 자세를 가지게 된다.

구원의식의 표상은, 묵시적 광경에서 온몸으로 ‘接神’하는 모습으로 제시된다. 여기서 부활의 조짐마저 느끼고, 인간의 종말에서 상실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의 열림을 경험함으로써 오히려 신비한 충만감을 느낀다. 그리고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은밀한 변화, 즉 ‘신의 은총’을 감지하면서 침묵으로써 경건하게 기다리는 정갈한 신앙인의 자세를 보여주었다.

이처럼 박목월의 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독교의식은, 원죄라고 하는, 인간존재의 모순된 조건에 대한 겸허한 인식과 수용에서 출발하여, 신의 은총에 의해서만 가능한 ‘속죄’의 거듭나는 과정을 거쳐, 이승에서의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부활을 예감하면서, 신의 부름을 조용히 기다리는 경건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제시되었다. 기독교 신앙의 대전제인 죄에 대한 철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 그의 기독교의식은, 그의 시적 여정과 신앙적 삶이 분리되지 않고, 그의 시의식의 궁극적인 지향점이 기독교의 구원의식과 일치하는 가운데 그의 시세계를 마무리하게 만든 동인이었다.

그의 신앙이나 기독교적인 시의식이 철저하리만큼 개인적인 차원에서 전개되어, 현실적 고통의 뿌리나 구조적 틀에 대한 통찰력을 결여함으로써 자기 시대의 모순이나 부조리에 대해 적극적으로 응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것은 그의 시적 한계로 지적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어려서부터 모성에 의한 전수로 기독교 신앙이 체질화된 시인의 시의식이 가지게 되는 양면성의 부정적인 모습으로 보아야 할 것이

다. 그보다는 우리 현대시사에서 보기 드물게 시와 삶과 신앙이 일치된, 긍정적 모습이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시인의 현실적 삶의 단계와 시적 변모과정, 기독교의식의 발전과정이 조화롭게 하나의 흐름을 이루는 가운데, 중국의 극점에서 하나로 만나 시적 초월과 종교적 구원을 동시에 성취한 소중한 사례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례는 여타 기독교시인들이 말년에 이르러 시보다 신앙이 앞선, 그 때문에 형상력이 결여된 시들을 남겨 시적 긴장이나 울림이 약해지는 것과 대조적인 측면이며, 우리의 문화적 풍토에 낯선 외래 사상인 기독교가 로고스의 변질이 없이 문학적 양식을 통해 착근하는 구체적인 모습이라는 점에서 예사롭지 않은 의의를 지닌다 하겠다.

주제어 : 박목월(Park Mokwol), 기독교(Christianity), 신앙시(Christian poetry), 원죄(the original sin), 중생(거듭남)(Rebirth), 구원의식(Will for rescue)

참고문헌

- 금동철(2000), 「박목월시의 ‘어머니’ 이미지와 근원의식」, 『한국시학연구』, 한국시문학회.
- 김열규(1980), 「정서적 인식과 종교적 위탁」, 『심상』, 심상사.
- 김은정(2000), 「시 속에 구현된 신과의 만남 -박목월론」, 『문예시학』, 충남시문학회.
- 김인섭(1999), 「박목월 정지용 신앙시의 대비적 고찰」, 『국어국문학』 124, 국어국문학회.
- 김재홍(1986), 「목월 박영종 -인간에의 길, 예술에의 길」, 『한국현대시인연구』, 일지사.

- 박봉근(1963), 「현대신학에 있어서 원죄의 케류그마의 상징화와 해석학적 문제」, 『기독교사상』71, 대한기독교서회.
- 신익호(1988), 「현대기독교시의 분석 -박목월론」, 『기독교와 한국현대시』, 한남대학교출판부.
- 오세영(1983), 「박목월론」, 『현대시와 실천비평』, 이우출판사.
- 윤성범(1997), 「한국인의 죄의식」, 『기독교사상』226, 대한기독교서회.
- 이성교(1973), 「크고 부드러운 손」, 『심상』, 심상사.
- 이승훈(1981), 「事物로 통하는 하나의窓」, 『박목월 : 한국현대시문학대계18』, 지식산업사.
- 최승호(2001), 「박목월 서정시의 이데올로기와 ‘어머니」, 『우리말글』21, 우리말글학회.
- 최승호(2002), 「1960년대 박목월 서정시에 나타난 구원의 시학」, 『어문학』, 한국어문학회.
- 한광구(2002), 「박목월 시에 나타난 ‘어머니’의 이미지 연구 -‘어머니’에 나타난 시간성과 공간성을 중심으로」, 『한국시학연구』, 한국시학회
- 허영자(2003), 「박목월의 시에 나타난 가족의 의미 -‘어머니’ 시를 중심으로」, 『새국어교육』65, 한국국어교육학회.
- 황금찬(1980), 「박목월의 신앙과 시」, 『심상』, 심상사.
- 황인교(1992), 「박목월의 신앙시」, 『기독교사상』397, 대한기독교서회
- J. Calvin(1960), 『기독교강요찬』(이종성역), 대한기독교서회.
- L. Berkhof(1958), 『기독교신학개론』,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출판부.
- L. Richards(1993), 『신학용어해설사전』(김진우역), 생명의말씀사.
- M. Erickson(1992), 『구원론』(김광렬역), 기독교문서선교회.

이 논문은 2004년 4월 30일 투고 완료되어
2004년 5월 22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04년 5월 28일까지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 회의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